

남편을 위한 한글 제문의 서술 전략과 의미

- ‘독처의 제문’을 중심으로

서경희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목차

- 1 서론
- 2 제문 작성의 배경과 목적
- 3 제문 서술과 표현의 실제
 - 3.1 본인 사정에 대한 해명
 - 3.2 남편과 친지들에 대한 원망
 - 3.3 생존의 이유와 자기 연민
- 4 제문 작성의 의도와 의미: 자기 표백(表白)과 제문의 전용(轉用)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독처의 제문’을 대상으로 여성 저자가 쓴 한글 장편 제문의 문학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제문은 남편이 병을 앓다가 사망한 뒤 소기를 맞을 때까지의 일을 담고 있다. 화자는 40세를 앞둔 나이로 자식들을 일찍 여의어서 벼슬을 살던 남편이 여러 해 앓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주를 세울 수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화자는 외로운 남편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제문을 쓴다고 작성 이유를 밝혔으나, 위로의 대상인 사자(死者) 외에도 자신의 시름과 처지에 대한 진술을 들어줄 다른 청자를 의식하고 있다.

화자는 남편이 병을 앓을 때 무심해 보이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해명한다. 또 자신이 남편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속앓이를 했던 것을 몰라주고 의심하며 임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친지들을 원망한다. 그리고 남편의 3년 상을 치를 때까지 살기로 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고독한 삶에 대한 울분을 쏟아낸다.

이처럼 독처의 제문은 남편과의 일상, 정서적 경험에 대한 기억보다 자신의 억울함, 섭섭함, 고독함에 의한 서글픔을 많은 비중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인 수사로 표현해낸다. 제문은 여성의 글쓰기로 용인되고 자신의 삶과 깊숙이 연결된 친지의 죽음을 계기로 작성된 까닭에, 제문 저술의 표면적 목적을 압도하는, 저자의 자기표현이 가능했다. 따라서 독처와 같은 여성들의 제문 쓰기는 여성들이 자기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삶을 표현하는 글쓰기로 전용될 수 있었다.

국문핵심어: 한글 제문, 여성 글쓰기, 남편, 위로, 자기표현, 자기록.

1 서론

한글 제문은 한 편 혹은 여러 편이 제책(製冊)된 경우도 있으나 대개 두루마리 형태로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어 자료의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 제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알려진 저자의 한문 제문에 비해 덜 주목받았다. 특히 여성이 쓴 한글 제문은 저자를 파악하기 더욱

힘들고 저자의 문장 구사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 보니, 알려진 문장가가 지은 제문들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성이 쓴 한글 제문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 한글 제문과 함께 여성 관련 제문의 성격을 아우르는 논의에서 자료적 가치가 주목되었다.¹ 최근에는 여성이 쓴 한글 제문만의 유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먼저 「견문록」에 실린 여성 한글 제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의에서 양식적 특성을 드러냈다. 제문이 일상의 사실과 과장적 진술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면서 율격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관계 중심의 편철적 구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² 여성 한글 제문의 감정 소통 방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제문이 고인(故人)의 생전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과 치유로 나아가는 글이라고 했다.³ 여성이 작성한 제문의 애도 양상에 집중한 연구는 딸이 친정 부모를 위해 쓴 제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슬픈 감정을 분출하고 고인과 감정적 유대와 분리를 반복하며 상실을 수용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딸의 제문에 나타난 애도의 특징으로 짚어냈다.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이 쓴 한글 제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산재하는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글 제문의 글쓰기 방식과 화자와 청자의 소통 원리, 그리고 고인에 대한 저자의 애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 1 여성이 쓰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이 지은 한문, 한글 제문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류경숙, 「조선조 여성 제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12쪽 참조. 이 연구에서 국문 제문의 일반적 구조와 표현, 한문 제문과의 상동성 등을 개괄하였다.
- 2 최윤희, 「「견문록」 소재 한글 제문의 글쓰기 방식과 갈래적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413-438쪽. 이후 여성이 쓴 제문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한글 제문의 유통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제문의 존재 방식을 문서류, 준성책류, 성책류로 나누고 존재 형식에 따라 제문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최윤희, 「한글 제문의 존재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52호, 동양고전학회, 2013, 313-349쪽 참조.
- 3 조성윤, 「여성 한글 제문(祭文)에 보이는 감정 소통의 원리와 교육」, 『동악어문학』 제72호, 동악어문학회, 2017, 37-59쪽.
- 4 최윤희, 「한글 제문에 나타난 여성의 애도」, 『고전과해석』 제24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18, 85-110쪽.

이러한 논의는 한글 제문의 문학적 양식과 표현을 파악하고 저자의 감정과 인식에 다가가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이 쓴 한글 제문은 개별 작품의 문학적 성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새로 발굴된 제문이 번역 소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⁵ 각 편이 지니는 문학적 성격, 여성 제문 작가 개인의 서술 방식과 표현력, 개별 작품의 위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제문 각 편은 기존 연구가 제시한 유형적 특징을 보여주는 일부 사례로 파악될 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여성이 쓴 한글 제문 각 편에 주목하고 그 작품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기존 논의의 성과를 더욱 풍부하게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본고는 박순호 교수 소장 한글 제문 가운데, ‘독처의 제문’⁶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글은 남편을 대상으로 쓴 제문으로 8,200자 이상의 긴 글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성의 제문들은 일반적인 형식과 상투구에 충실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하지만, 글쓴이의 표현 의지에 따라 저자의 정서와 관계의 기억이 풍부하게 표현되기도 했다. 특히 제문의 당사자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자신과 많은 경험을 공유하는 인물에 대한 글인 경우,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제문이 장편화 되기도 했다. 여성들이 한글로 쓴 제문이 적게는 500자, 많게는 3,000자 정도가 일반적인 분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⁷ 이 제문은 투식구와 관용적인 서술만으로 완

5 한글 제문도 윤숙이나 박남수 등 남성들이 아내, 외조모 등을 위해 쓴 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특정 지역에서 발굴된 자료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일근, 「정경부인 이씨제문: 충무공 윤숙의 한글 처 제문」, 『인문과학논총』 제9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125-168쪽; 김상홍, 「박남수의 한글 「을미제문」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2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4, 415-434쪽; 안동민속박물관 편, 『안동의 한글 제문』, 안동민속박물관, 1998, 1-397쪽 등 참조. 여성이 쓴 한글 제문의 각 편을 하나의 작품으로 소개한 사례는 홍윤표, 「딸이 쓴 아버지 제문」, 『문헌과 해석』 제17호, 문헌과 해석사, 2001, 54-69쪽 참조.

6 “유세추 만화벽초는 씨를 조추 회성을 흥건마는”(이후 인용한 모든 원문은 필자가 띄어쓰기해서 옮겼다. 중복된 글자는 ()로, 판독이 힘든 글자는 □로 표시한다.)으로 시작하는 이 제문은 “제문”을 본문 앞에 제목으로 두었고 그 아래 “오회통지 ” “라”를 부제처럼 썼다. 이 글에는 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글의 화자가 주로 ‘독처’로 자칭하고 있어, 편의상 ‘독처의 제문’이라 이름했다. ‘독처의 제문’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순호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7 박순호 소장 제문 가운데 여성이 쓴 한글 제문 34종의 평균 분량은 1,850자 내외(띄어쓰기

성할 수 없는 장편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압도적인 자기 경험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 글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문은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글이지만, 저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문 글 쓰기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제문 작성의 배경과 목적

독처의 제문은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지난 소기(小耜), “신묘 삼월 순 팔릴”에 쓴 글이다. 남편이 병을 앓던 시기부터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시기까지의 소회를 술회한다. 독처의 남편은 “경인 삼월 순 팔릴”에 세상을 떠났는데, 경인년은 1830년이나 1890년, 이 글을 쓴 신묘년은 1831년이나 1891년으로 볼 수 있다. 독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생전 벼슬에 따라 금의 관복을 수의로 입히기를 원했으며⁸ 부모에게 불효를 끼쳤다는 이유로 남편의 장례를 구일장으로 치르는 것을 답답하고 분하게 여겼다.⁹ 조선시대에는 관직을 했던 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관복을 수의로 썼으며, 벼슬 품계에 따라 장례기간이 달랐는데 5품 이하 여도 달을 넘기는 기간 동안 장례를 치렀다. 현재 장례 기간이나 삼배 수의는 일제시대 이후 정책적으로 권장되어 정착된 것이다.¹⁰ 독처가 벼슬에 따른 ‘금의관복을 출난니’ 베풀고자 하고 남편의 장례를 비교적 짧게 치르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원통하게 여겼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제문이 195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1891년이나 그 이전 기록으로 파악된다.

제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지만, 화자의 남편은 벼슬에 나가 명망이

불포함)이다. 34종 가운데 장편 두 종을 제외하면 평균 1,540자 내외의 길이이다. 한글 제문은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량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박순호 소장 여성 한글 제문을 표본으로 평균 길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8 “불상 ” “ 호오신 가군의 천금옥테랄 고이 ” “ 들어 각석 의복 정니 ” “ 지여 츠시 벼슬을 조츰 금의관복을 출난니 베풀오서...”
- 9 “이러덧 양친호 불효을 씨친고로 귀일장을 흥는지라 이고 답 ” 분 ” 흥은지거”
- 10 국사편찬위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70-71쪽; 남민이·한명숙, 「조선시대 수의와 현행 수의의 착의법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제8호, 복식문화학회, 2000, 822-841쪽 참조.

있었던 인물로 추정된다. 앞서 생전 벼슬에 따라 관복을 입혀 장례를 지내고자 한다는 서술뿐 아니라, “우리 소천이야 명망니 스희의 진동호오서 일국의 씩여씨 날”, “일처의 가장이야 분명 차시 덕공을 일워씨든”, “우리 가군은 초성의 공명만 씩이오서”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문이 사자의 명예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직에 나아가 공무를 보고 이름이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6년 정도 병을 앓았는데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서¹¹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독처의 남편이 집밖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는 여러 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다.

일처일신하여 연상 삼십니 넘어 스십니 머지 안스오되 우리 양인이 일
기골육이 업스니 혼심 가석이라...우리 양인이 불과 십연 동거랄 다 못
하고 허송세월을 다 보니고 이 지경을 당홀손가 오회가석이라

독처가 혼인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30대 후반의 나이였다. 이들 부부는 혼인 이후 사정상 10년 정도만 함께 지냈는데, 그 사이 자식을 남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독처와 그 남편 사이에 자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양인의 앓가온 혈믹 스남미 둥 일썩만 스라시면”이라고 서술한 것은 보면, 사남매를 낳고 기르다 모두 일찍 여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후사를 잇지 못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독처는 이 점을 안타까운 지경이라 언급한다.

독처는 남편의 소기를 맞아 이 글을 쓰면서 제문을 작성하는 이유를 여러 번 밝힌다.

① 니 실낱갓탄 일신을 개요 ” ” 억제하여 안보호옵기는 다란 수회 안
이라 오회가석이라 추호일본도 아람업스오신 영위랄 의턱홀 썬더려 나

11 “신병 장초 육연 미류호시고 불악지효로 초 ” 감세되오시기로...”

의 선가부 영혼을 위로코져 일장 제문으로 무익지필을 남지하여 첩 ”
고봉갓치 스헌 수회탈 일본지누 기록호오

② 앓갑다 우리 소천 청춘요소를 못 면하고 양친시호 불효막디호오심무
로 어니 외로운 혼백이신들 여복지원 ” ” 원통지심미 쫓칠날리 잇스리
요 그려호심무로 호야 무익수필노 일장 제문으로 그디의 외로운 혼백을
위로호오니 부디 ” ” 가공호은 독처의 처량함을 가니 슬피시와 혼미당
심의 선후 업소오니 김피 용서호시고 호은¹² 독처의 수필을 감동호샤 주
” 니 슬피심플 주소야틱의 오미불망으로 빅 ” 소원이업누이다

③ 이지는 진이미라 아모리 익통 ” ” 하여 일 ” 만스 뇌심초스로 만신
주충하여 만스 뜻시 전니 업스디 우리 가군의 혼백을 위로호노라 뒤강
수회을 읊푸나이다

①과 ②는 서두 부분에 거듭 언급한 제문 작성의 이유이고, ③은 글을 마무리하
면서 다시 한번 밝힌 이유다. 세 번에 걸쳐 밝힌 제문을 쓰는 이유는 남편의 혼백
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제문의 가장 중요한 작성 이유
이기도 하다. ①에서는 죽지 않고 억지로나마 몸을 보전하는 자신의 고봉같이 쌓
인 시름겨운 마음을 일부라도 기록하고자 한다는 ‘다른’ 의도를 함께 서술하였
고, ②에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막대한 불효를 끼친 남편의 원통함을 위로한다
고 서술하면서 위로의 이유를 구체화하였다. ③에서는 제문의 마무리 부분에 애
통함으로 속이 더 타들어 가 만사에 뜻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남편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다. 남편 혼백에 대한 ‘위로’를 주된 이유로
밝혔지만, 제문 작성 이유를 밝힐 때마다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자기 시름의
진술, 요절하여 불효를 끼친 남편의 심정에 대한 공감, 애통함으로 소진된 자신의

12 제문이 길어서 종이를 이어붙이면서 작성했는데, ‘호은’ 두 글자부터 다른 종이를 붙여 연
결했다. ‘~호은’으로 수식하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호은’ 두 글자부터 잘라 붙
여서 앞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강조가 혼백에 대한 위로에 더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미묘한 차이와 함께 제문의 청자와의 거리도 변화한다.

화자는 ①, ②, ③에서 청자를 부르는 호칭을 달리한다. ①에서는 ‘나의 선가부’, ②에서는 ‘그딤’, ③에서는 ‘우리 가군’으로 부른다. 즉, ①과 ③에서는 남편을 3인칭으로 부르고, ②에서는 당신이라는 2인칭 호칭을 사용한다. 제문의 청자가 제사의 당사자이고 제문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대화의 글이기 때문에 ②에서와 같이 화자가 2인칭으로 대상을 호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많은 제문에서 글의 화자는 죽은 이를 당신[君], 너[汝] 등 2인칭 호칭으로 부르며 생전에 못다한 말을 건넨다. 그러나 의례용으로 작성되는 글이 낭독되는 상황, 그리고 제문이 주변인들에게 두루 읽히기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문의 대상을 3인칭으로 부르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독처의 제문에서도 ②에서 남편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글의 목적을 강조할 때에는 청자를 직접 부르지만, ①과 ③에서처럼 남편에 대한 위로가 자신의 속내와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맞아맞는 경우, ‘선가부’나 ‘가군’처럼 예둘러 청자를 부르고 있다. 제문은 필사 후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¹³ 남편을 청자로 상정하고 그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화자가 밝힌 제문의 작성 이유를 곰곰이 짚어보고 제문이 놓인 맥락을 고려할 때 남편 말고도 다른 청자/독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처가 장편의 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독처의 제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까닭이다.

3 제문 서술과 표현의 실제

남편의 소기를 맞아 작성된 이 제문은 화자가 남편이 병을 앓던 시기부터 현재 시점까지 되돌아보고 “비충지심을 세 ” 씨다라” “첩 ” 고봉갓치 스헌 수회”를 기록한 글이다. 남편이 병들고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기까지의 일과 남편 사후 자신의 처지를 서술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중심으로 일목요연

13 “신묘 삼월 순 팔릴 일 ” 소천을 향망하여 독처의 (혈)혈 ” 단신 명지(수)수회랄 우리 가군의 부치노라”

하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독처의 마음에 맺힌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글이다. 그동안 가슴에 품은 말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이 시점에 제문에라도 풀어놓지 않을 수 없었던 심곡을 살펴보자.

3.1 본인 사정에 대한 해명

독처는 여러 해 병을 앓던 남편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해명한다.

오회 비석 가련 가석이라 그시 토목과 다랍업스은 슈연 미류 신환으로
주소의 만스불통호오서 황 " 호오시디 무거호은 일처의 마음은 미옥소
건니 쪽이 업는 고로 이러텃 일편으로 곽집호기난 다랍미 안니라 인 "
마닥 부 " 일신니 분명키로 가장을 위호야 근목즈혹니여든 혹 일처의 혼
적이라도 가족이 빗최오면 신병니 감수되오실가 글노호야 외면의는 츠
시 토목의 비호오디 구싱윤여가 아니여든 호물며 수연을 일방동거호야
유즈윤여호여거든 어니 부 " 인정니 두텃지 아니호리요마난...일처의
평심 일신니 가장의게 흥망간스가 미여거날 어니 주소의 일시 반곡인들
마암을 부리리요

화자는 남편이 병으로 밤낮없이 불편해하던 때에 사람들이 부부가 한 몸이라 가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의 혼적이라도 가까이 가면 남편의 병세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했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자신의 태도가 겉으로는 목석처럼 무심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외면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속내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여러 해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자녀를 낳았는데 부부 인정이 두텃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자기 평생의 잘되고 못되는 일이 모두 가장에게 매여있는데 밤이고 낮이고 잠깐인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느냐고 묻는다.

독처는 병든 남편을 대하는 화자의 처신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독처는 자신이 왜 토목에 비할 정도로 병든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는지 그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정과 본의를 설명한다. 그리고 자

신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단정해 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 자신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무엇이어야 했는지 항변한다. 병든 남편을 둔 아내 된 자의 조심스러운 심정이 어떠한지 당연한 마음이 무엇이었던지 헤아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화자의 답답한 속내를 읽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화자는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갖은 애를 썼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처의 가장이야 분명 차시 더공을 일워써든 어니 천신니 감동치 안니
 시와 전정니 구말미갓탄 우리 양인의 평상 일신을 시〃 감동호스 명벽
 키 살펴주심을 썬치와 슈연이라도 쾌복호오서 회싱호시그랄 고향을 그
 다려 주소야택의 천지신영만 의지호고 주소의 동우 정화슈로 양슈 거주
 호야 벽〃 호례로 복축〃〃 고망〃〃 호와 일야의 골도리 동업호야 일본
 도 일신을 앓찌미 업시 주소야택의 일편으로 가장을 일단 위호여 항회
 지심므로 호야곰 시〃 촌장니 스라지난 안정니야 츠시 이인니 열기 업
 습건니와 쏘호 천지조화를 다 품어시디 인〃 마닥 쑥고지 안이호면 당인
 의 속을 모라난디 아모리 부〃 일신니라 호온들 상청천문호고 하출지리
 랄 모라거든 일〃 만스 혼미등으로 가득 슈습을 님으로 못호시거든 호
 물며 타인으로 부〃 지의를 미즈거든 어니 일본도 풍고지 안혀거날 일〃
 의 항심을 일편으로 석는 줄을 짐작이누 호시리요마는 이제 시로니 울
 〃 전일을 시〃 비창컨디 이지난 진실노 금의야힘이 되을 줄 어니 몽둥
 의나 싱각호여쓰리요

화자가 믿었던 것은 천신이 감동하고 살펴주시는 힘이었다.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양친부모와 여러 형제들이 좋은 방도를 찾아서 복약 치료를 무수히 했지만 병이 점점 깊어져 온갖 약이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¹⁴ 화자는 천지 신령을 의

14 “아모리 양친부모와 층〃 동고 다형데호오서 무른 범절리 선〃 호시와 츠시 더방가을
 취틱호여 일야의 시〃 황논부림호오서 복약치로랄 무슈히 호시디 점〃 침둥호시와 벽약니
 무효되오시 어니 주소의 축심을 일신들 면호오리요”

지할 수밖에 없었다. 독처는 가장이 대공을 이뤘고 두 사람의 앞날이 아직 구만리 이니 천신이 이에 감동하여 남편이 몇 년이라도 더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밤낮으로 일본도 몸을 아끼지 않고 정화수를 떠 놓고 두 손 모아 절하면서 간절히 빌고 바랐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독처의 정성은 촌장이 녹아 없어질 정도였지만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천지의 조화를 다 품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속을 모르는 법이니, 아무리 부부가 한 몸이라 해도 자신의 속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남편이 천하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도 아니고 병으로 혼미 중인데다 타인으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은 당시 내색하지 않은 자신의 속내를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이른다. 이제 와 다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남편의 회복을 위해 갖은 노력과 정성을 쏟으며 노심초사 병을 걱정했지만, 그것이 전혀 생색나지 않는 일이 되고 말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독처는 자신이 남편에게 해가 될까 봐 처신을 조심한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화자는 당시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씩어 가는 심정을 남편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장황하게 서술한다. 그런 이유로 자신은 남편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갖은 정성을 다 쏟고 마음고생을 했지만,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지난 노력과 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죽은 남편도, 주변인들도 자신의 진정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름대로 짚어보고 있는 것이다.

제문을 통해 이러한 항변과 해명을 하는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도 화자가 친지들의 불편한 시선과 뒷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난은 화자 남편의 병이 낫지 않은 책임을 은연중에 화자의 무심한 태도에서 찾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처는 자신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제문을 통해 당시 자신이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 나름의 노력과 진심,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의역함을 절절히 토로하고 자신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3.2 남편과 친지들에 대한 원망

독처는 제문에서 시가 친지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다. 병든 남편을 대하던 화자 자신의 처신을 해명하기도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친지들을 원망하고 있다.

그시의 황 " 혼미 심혼니 흑스갓치 스러져시디 그제야 모든 친척과 양친 부모와 각 " 동기와 이지 토목과 갓탄 일처의게 말절의스 급부랄 전허거 날 그제야 심혼니 황겁허야 진실노 심혼니 검두의 썩여 우리 소천의 침소의 이라미 밭서 우리 압갑고 앓가온 내의 가군의 심혼니 어디을 향허 오신 곳시 전니 업고 옥안유풍만 완년허오서 곤니 즈을 지피 일운다시 침석의 단정니 비계시디 아모리홀 모척니 전니 업스와 일조일석의 호천 망극지통이 궁양의 가득허야 양천탄식으로 빅 " 우리 소천의 혜골을 답 " 니 흔들면서 만단으로 통곡잔잉니 위로허되 익고 " " 답 " 무상허은 우리 소천은 진야 초심을 허직허온잇가...익고 " " 철추보원 내의 신세야 무상허고 야속허은 동기 친척은 무산 허면목으로 내의 금옥갓탄 가군의 혜골 뵈홀 길 업시 초심을 허직허실 제 기별만 허여씨면 우리 양인의 일석 상좌의 디강 수회를 들를 쏜더려 쏘흔 충신은 불스이군니요 열여는 불경이부라 허여씨든 허물며 일처의 향회지심미야 여복허리 그려 허심므로 허야곰 부 " 일신이 당연허기로 일싼 우리 소천의게 비썬디 우리 서친의 혈육으로 단지랄 우리 가군의 안복의 숨점만 드리오드면 응당 복심을 허오서 이제 부 " 일신이 분명허거든 어니 소천의 디명을 못 설손냐 오회통지 " " 라

화자는 친척과 부모, 동기들이 자신에게 급한 소식을 마지막에야 전해서 자신이 남편의 침소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이미 죽음에 이른 뒤였다고 했다. 생전 그대로 깊이 잠을 이룬 듯이 침석에 기대어 있는 남편의 시신을 흔들면서 통곡하고 부르짖던 당시 감정을 지면 위에 다시 소환하였다. 독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하지 못하고 단지(斷指)로 다시 살릴 기회를 놓친 것은 동기, 친척들이 자

신에게 제때 기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한다. 만약 동기와 친척들이 연락만 늦지 않게 해줬어도 화자 부부가 한자리에서 대강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남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대신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야속하다고 말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자신이 끝 간 데 없이 애통한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탄식하던 당시를 묘사함으로써 친지들의 무심한 처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부각시키고 있다.

독처는 제문에서 남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을 거듭 언급하는데, 원망의 대상과 정도가 확대된다.

이고 " " 답 " 가궁호오신 우리 소천은 무슴 길리 그디지 밧부오서 아
 모리 군자갓탄 성덕을 진여시던 그시의 무익호은 일쳐을 츠즈오서 다정
 인후호오신 음성으로 우리 양인니 피츄 망종이별호실 적의 혼 번 위로
 호여시면 이디지 지원 " " 원통 " " 호오며...호물며 우리 가군이야 츠
 시 췌 " 호오신 옥안유풍으로 군주의 틀을 가져췌든 가니 호실 말스미
 그디지 무일언호실손가 야속호고 무상호은 동긱친척은 무산듯슬 품어
 관디 그디지 속일 속일손야 부 " 간은 고사호고 수원간도 츠성을 호직
 호는 시의논 치근지심미 업췌 호여 잇는디 호물며 부 " 간이야 닐너 무엇
 호리요

화자는 남편이 군자 같은 성덕을 지녔으면서도 자신에게만은 따듯한 말을 남기지 않은 것을 원통하게 여긴다. 마지막 순간에 남편만이라도 자신을 찾아 두 사람이 피차 영결하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위로를 전하였다면 이렇게 애통하지는 않을 것이라 이른다. 남편은 성덕을 지니고 대공을 세운 번듯한 군자임에도 왜 자신에게만은 죽기 전에 다정한 위로나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는지, 남길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지 의아하게 여기며 어찌하여 이다지 가슴에 큰 한을 남기는지 반복해서 질문한다.

또 동기, 친척들에 대한 원망도 더욱 짙게 드러낸다. 앞에서는 친지들이 늦게 기별한 탓만 하고 있지만, 서술이 진전될수록 그 늦은 기별의 의도를 의심한다.

원수지간이라도 죽음을 앞둔 때에는 측은지심이 들 텐데 부부지간이야 말해 무엇하냐고 이르면서 그럼에도 동기, 친척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자신을 속였던 것인지 묻는다. 남편의 죽음을 자신에게 늦게 알린 것이 어쩌다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독처가 주변 친지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편이 병을 앓던 때 자신의 태도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처의 조고만한 안여즈로 미육속견 죽이업서니 내 뒤스을 일본도 씨닷
지 못흐은 고로 혹 무상 추립으로 문병흐는 계 일본이나 우리 소천의 천
금일신의 손수가 밋출가 글노흐야 외면의난 타인과 다람업시 무심니 지
낸거슬 무상흐은 동기친척은 진실노 실속이 등안흐은줄만 아라썤가 눈
치만 슬피면서 답 " 비 속여써든 뉘라서 설마흔들 이갓치 무죄간의 우리
소천의계 히필 악쓸리법흐을손가

화자는 자신이 자주 출입하면서 남편을 문병하는 것이 남편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지냈는데, 동기 친척들은 진실로 자신이 무심하고 소홀한 줄만 알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신이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일에 대해 당시의 심정을 해명하기도 하지만, 친지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결국 임종의 기회를 막았다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당시 동기와 친지들은 자신이 남편에게 무심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여기고 눈치만 보면서 남편의 상황을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였다고 단정한다. 그러면서 누가 설마하니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부당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⁵

15 주변 친지들이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은 뒤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다시 표현된다. 남편의 묘역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며, 특히 소렴을 치를 때 자신의 불쌍한 처지나 화자 부부의 중한 회포를 살피주지 않고 급하게 갈라놓았다고 한탄한다. “이러덧 일본 소정업시 소렴을 친 ” 흐야 소 일 성복흐을 적의 송죽으로 집을 삼아 관육갓탄 우리 가군 흥추천금 덩피노코 망중이별 시 긴 후의 모든 타인들은 내의 가금흐은 일신을 일본도 안니 발켜쥬는 동의 우리 양인의 극등

이와 같이 독처는 유독 자신에게만 다정하지 못했던 남편, 그리고 남편을 여의는 자신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않은 친지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특히 남편의 병을 대하는 자신의 입장과 주변 친지들의 기대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고 불편한 시선에 노출되며 결국 자신이 남편의 임종에서 소외되었던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술할 뿐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지 않은 주변인들의 심중을 짚어내며 원망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원망은 남편의 병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에서도 묻어난다.

이러틋시 천지신영니 일분도 감동치 안니심과 조물리 고로지 못흐옵고
 신지가 이갓치 죽이흐온줄은 일쳐는 과연 감〓 모라시누 원수 미류 신
 병 장추 육연 미류히시고 불악지효로 츄〓 감세되오시기로 기흐만 기다
 리고 일〓 곱고 바라던츄 독흔 신지가 범수흔 것술 우리 가부의 일신니
 점〓 쇠진히무로 기운이 여류히야 주역 일 권을 베푸려 양심으로 축기
 랄 히여더면 확실히 제거히야시면 우리 소천의 수환을 치우는 것술 심
 각스록 이답고 의〓 분도지심 어누 곳의 다 쓰히놀고 그시 좁귀랄 제거
 치 못히고 흘길업시 악박을 당하누고 나 일조일석의 지원〓〓 원통〓〓
 히여라

화자는 남편 병의 원인을 잡귀의 방해로 여기고 있다. 자신이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오랜 병치레에 약이 듣지 않는 데도 차차 낮기만을 기다리다가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다고 했다. 화자는 축귀를 하여 그 병의 근원을 제거했다면 남편이 수명을 채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생각할수록 억울하다고 후회했다. 이러한 서술은 남편이 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화자의 자책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남편이 병을 앓았을 때 약만 무수히 쓰면서 제대로 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한 양친과 여러 동기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화자는 남편의 부모, 형제들이 나서서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썼지만 별 효험이

〓〓 히은 회포랄 일분도 슬피미 업시 성화와 깃치 같나니며 오회비석니라” 독처에게 남편의 장례는 충분치 않을뿐더러 야멸찬 대접을 받았던 기억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없어서 자신은 애만 태우다가 정화수를 떠 놓고 밤낮으로 정성을 들였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화자가 시가 가족들을 타하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당시 남편의 치료를 주도했던 양친과 동기들에 대한 원망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남편의 병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여기는 친지들에 대해, 그 책임을 되돌려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처는 남편의 무정함이나 친지들의 야속함을 타하던 말끝을 결국 자신에게로 돌린다. 남편 죽음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인한다.

일처의 마음은 엇지흔들 우리 소천니 분명커든 아모리 원슈무독혹은 좁
귀탈 이갓치 제거치 못혹을 썬더려 쏘흔 오회통지 " "라 도시 뉘을 원
망하며 쏘 엇지 천일을 칙망하리오 도시 일처의 향심미 부족혹은 고로
이갓치 노천니 감동치 안니시와 일처의 죄역니 지동혹여 이러텃 익뭇혹
은 우리 가군의 구말니 갓탄 전정을 안이의 비명으로 츠심을 이갓치 원
통 " " 이 혹직혹오실썬디...

독처는 자신의 속내와 달리 남편에게 해가 될까 무심한 듯 행동하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갖은 정성으로 기도하며 남편의 회복을 바랐지만, 결국 남편이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의 마음이 오로지 남편에게만 향했으나 남편의 몸에 병을 일으킨 잡귀를 제거하지 못했으니 누구를 원망하며 하늘을 책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부족하여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 그런 것이니 죄가 크다고 하면서 자신 때문에 앞길이 구만리 같은 남편이 원통하게 이생을 하직하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앞서 친지들이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던 것에 대해 항변하던 것과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책임을 다시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향했던 비난의 어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독처는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으로 원망을 토로하는 글의 방향을 선회하여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죄의식을 드러내는 제문의 일반적 궤도와 보조를 맞춘다. 이러한 선회는 독처가 제문에서 구사하는 자책과 원망의 길항을 보여주는 것이며, 제문의 청자/독자를 의식하는 아슬아슬한 화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생존의 이유와 자기 연민

화자는 남편을 장사지낸 뒤에도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다.

그러도 원슈 완명니 나문 고로 그령저령 혼미둥 심혼을 게요 안보하야
솔진즉 밭서 출상을 하시와 예로조츰 조석향화와 육시고급의 잇통을 하
오디 통곡무시라 일쳐일신하여 연상 삼십니 넘어 스십니 머지 안스오디
우리 양인이 일기골육이 업스니 혼심가석이라 이지는 무지천일리 음히
을 나리오서 일조의 외로운 일신이 분명하스 오회비석이라

남편의 장사를 지내고 예에 따라 제사를 올리며 곡을 하지만, 40세가 머지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외로운 몸이 된 것을 슬퍼하였다. 이후 독처는 혼자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점차 심화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식을 두지 못한 남편 혼백의 고독한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헤아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가군은 초심의 공명만 썩이오서 남녀간 고육 일기 업스와 호상
삿티 샹듀 일썩 업스오니 우리 소천의 이에이고 혈 " 단신 쪽니없시 산
신만 의지하시고 슈빅 명 호상군은 거리 " " 지축이 성화갓치 치을 제
겨디 하슈 보널 적의 히가흔 한 소리의 뉘 안니 슬레하며 그시 초악경곡
은 인 " 은 고스하고 초목금슈라도 늦길지라...이지는 진실노 금야부텨
금옥지신니 분명하샤 어느 상주잇서 간혹 왕니하면서 원혼을 위로하실
가 이지는 금야부텨 어나 봉우초즈오을가 뒤견이로 버슬삼아 삼혼궁양
의 미친서름 뉘라셔 위로하오리 망촉가공하여라 오회통지 " " 라

우리 양인의 앗가온 혈믹 스남미 둥 일썩만 사라시면 우리 가군의 초심
흔적이 분명하여 뉴디선영의 후스을 디 " 이을썩더려 또흔 양친시하의
비록 불효랄 씨쳐시나 부지 일신이여든 주식으로 디용하야 간혹 위로하

여 만디 유전허거드면 무산 후회 이디지 밋쳐 고 " 이 미칠손가 오회 통
지 " " 라

독처는 남편이 밖으로 공명을 떨쳤다고 하지만, 낳은 자식들을 모두 일찍 여의어
서 장례에 상주가 없고 매장된 곳에서 짝도 없이 홀로 산신만 의지해야 하는 외로
운 신세가 되어 사람뿐 아니라 산천초목도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도 죽
음으로 뒤를 따르지 않아 합장할 이도 없고 무덤에 왕래할 후사도 없어서 그 설움
을 위로받을 길 없는 남편의 처지를 어이없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화자는 남편이 이생에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해서 후사를 이어나가지 못
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끼친 것이 마음에 후회로 맺혔다고 서술한다. 생 자체를 쓸
쓸하게 마친 것도 누구나 애달파할 일이지만, 이승에 남편의 흔적이 남지 않아서
그 존재를 대신하고 이어갈 길이 없다는 점을 가슴 아파했다.

따라서 후사를 키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상을 다 치르는 것을
화자 자신의 몫으로 여겼다.

일월리 흐랄수록 처 " 의 미친 여헌 어디로 붓쳐 일분이나 베풀손냐 가
고지거 가고지거 우리 가군의 뒤을조츰 흥 무덤의 들고지거 흥은 마음
일편의로 곡집허나 그시 독심을 초일피일 미류기논 양친허 뉴디 종손
장조로서 불효을 씨친고로 부 " 지의예 일편으로 향심미야 어니성시 스
후랄 가리리요 그렬쓰록 우리 소천 경곡니 탁 " 니 불상 " " 흥오신 가군
의 삼연 향화 밧든 후의 뒤을 조출진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화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맺힌 한을 풀 길이 없어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싶지만, 죽고자 하는 '독심'을 미루는 이유는 한결같은 부부의 의
리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즉 남편이 종손 장자로서 자식을 기르지 못하고 요
절하는 불효를 끼쳤으므로 자신이 남편의 삼 년 상을 치르고 뒤를 따르겠다는 계
획이다. 자신이 삼 년 상을 온전히 치르는 것이 그마나 양친 부모나 남편에게 최
선이라 여기는 것이다. 독처는 자기 삶의 이유와 기한을 오로지 남편의 3년 상을
치르는 것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승을 떠난 남편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축수한다.

우리 가군은 차시 군자로 효행을 썼 " 시 형의 지당하섯거날 선경의로
어니 안니 뵈실손가 노양황초의 빅확니 인도하야 도리천궁을 막디 집퍼
득득천당을 호오서 북두칠성을 칠즈되여 좌우로 응우호고 일등미식 팔
선여랄 스모로 갈나세워 주소의 은 " 이러덧 오식이 영농하야 육각으로
천하을 희롱하신닐 상쾌호고 신기호오니 우리 소천 차성의 슈한을 못다
치와 첩 " 이 각식으로 미친 하원 스후로는 풀어쓰다

화자는 남편이 살아생전 행실이 떳떳하고 지당했기 때문에 사후에 선경(仙境)으로 모셔질 것이라 했다. 그가 선경에서 북두칠성을 일곱 아들로 삼아 좌우로 응위시키고 일등미인 팔선녀를 갈라 세워 두고 천하를 희롱하기를 소원했다. 보통 제문에서 세상을 떠난 이가 사후에 극락세계에 가서 안존하기를 바라거나 서왕모나 월노할미와 벗하여 노니기를 상상하는 서술¹⁶은 종종 나타난다. 죽은 이후의 명복을 비는 관용적 서술로 볼 수 있는데, 화자는 남편의 혼백이 도리천궁에서 복된 사후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아들과 미인들에 둘러싸여 수작하는, 외롭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체적으로 기원했다. 그러한 상쾌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 남편의 맺힌 마음이 풀리기를 주문하는 것이다.

화자는 남편의 외로운 혼백을 위무하면서 저승에서라도 고독한 처지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즐거움을 영위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사후 세계에서라도 이승의 한을 풀고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은 화자가 이승에 더 머무는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혼백이 속세의 결핌을 충족하기를 바라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승에서의 화자 자기 삶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려도 차성의 오회비석니라 무흥 세월리 흐랄적마다 여간 나문 심곡이
촌 " 녹습기는 독처의 평성 일신을 그디가 진실노 모순하섯썩든 무산
면목으로 거두랄 하여 타인 축의 석길손가 지원답 " 분 " 흥은 내의 일

16 류경숙, 앞의 글, 130-131쪽 참조.

신 이 지경니 되을 줄을 몽둥의나 심각호오리 진야 몽둥스나 되여 썩사
 라 우리 양인니 소원 성취호고지거 무익궁양 못엇호리요 가솔옵다 " "
 " " 독처의 일신 가솔옵다 일 " 마다 석양이 지닌 후의 속취투림호고
 원슈 츠시랄 당호여 일월은 썩을조츰 미월미시의 옥최동역의 소연이 빗
 최는디 장 " 춘일 단야 등의 뒤견니는 무상 슈심으로 저디시 썩 " 시 슬
 피운요 나는 천호의 디죄랄 평성 고희업시 밋츰시미 일처의 봉우 어디
 가 잇슬리요 이제는 진실노 귀척도을 봉우삼아 이려딛 일편으로 밋친
 설름 너와 나와 전유호여 뉘 귀운니 진홀손나 네 근본 내 모라거든 죠 "
 모 " 의 네 봉우랄 어니알야 오회 통지 " "

화자는 기한이 정해진 삶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곡이 마디마디 녹는다고 했
 는데, 그 이유는 남편을 여의고 평생이 어그러진 자신이 머리를 들고 다른 사람
 사이에 섞일 면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따라 죽지 않은
 자신의 삶은 천하에 끝도 없이 큰 죄를 지은 것이니 자신의 서러움을 나눌 친구
 하나 둘 수 없을 것이라 여겼다. 이처럼 남편의 요절로 자신이 세상의 죄인이 되
 어 얼굴을 들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
 이라 했다.

자신의 외로운 신세는 단지 남편을 여의고 자식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삶이 무너진 채 3년 상을 이유로 살아남은 죄, 그
 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처지, 누구와도 자신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없는 고독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깃들 곳이 전혀 없는 자
 기 신세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이어진다.

우리 양인니 첩 " 이 밋친 회포 첩 " 니 썩혀거날 어니 무익 셔등의 일분
 니나 베푸즈흔들 무죄흔 지소을 모손호여 만권 셔척이 부족홀닷 호야
 시 " 호련니 안심호여 우리 양인의 디강 수회랄 개요 " " □□ " " 적
 필호기는 다람미 안이라 가군의 삼연 향화을 일 " 주소으로 죽기로써 고희
 호고 원슈 완명을 근 " 부지홀 " 디 그간 슬픔은 날노 소스 무른
 일을 폐일언호고 굴속갓탄 내의 침소의 호련이 비길 적마다 호님업는

뉴슈는 묻저 압을 가려 동희슈랄 넘치올닷 호오나 뉘라셔 일처의 회심
 을 일분이나 거두어 칠산슈의 붓티오서 시"로 첩" 미친 서툼 일" 순
 풍을 조츠 십이시랄 것칠 곳 업시 흐를쨌디 그만하면 무산 수심 나물손
 가 이답또다 " " 내의 일신 분호여라 이지도 달슈랄 기호호미 망증 철
 귀연이 십삼식 반듯호니 이고 " " 답" 망" 호은가 궁한 신세야 일일리
 여슴츄라 이갓치 근" 걸닌 환심을 어니 기호을 기다릴고 원슈로다 "
 " " " 일처의 신세 그디지 망촉홀가 이고 " " 답" 호여라

독처는 ‘우리 양인’, 즉 남편과 자신의 맺힌 회포가 첩첩이 쌓여 있어서 조금이나
 마 서술하려 해도 만 권 서책이 부족할 정도라 했다. 남편 혼백의 애처로운 처지
 뿐 아니라 자신의 응어리진 마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무궁히 많지만, 이 제문
 에 두 사람 심정의 대강만 쓴다고 했다. 화자는 애초 제문의 작성 이유를 남편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했으나, 정작 넘쳐흐르게 쓰고자 하는 것은 남편에 대
 한 공감과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회포라고 했고, 그 이후 정작 서술한 것
 은 자신의 슬픔에 관한 것이었다.

화자는 모진 목숨을 근근이 부지하고 있자니 그간 슬픔이 날로 솟아나는데,
 특히 하염없이 눈물을 차오르게 하는 자신의 슬픔을 덜어낼 길이 없는 것이 애달
 프다고 했다. 누군가 자신의 회포를 조금이라도 알아주거나 위로한다면 자신의
 서러움이 자연스럽게 풀릴 텐데 그렇지 못한 처지를 분하게 여겼다. 그리고 독처
 는 혼자된 자신의 감정들을 비유적으로 충분히 형상화 내고자 애썼다. 자신의 거
 처를 어둡고 캄캄한 ‘굴속’에 빚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동해수기 넘칠 정
 도’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도움도 ‘물’에 보태어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순리와 연결시켰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의 주
 체할 수 없이 큰 슬픔을 누구라도 조금만 덜어준다면 이치가 흘러가는 대로 그 응
 어리가 남지 않을 것이 자명한데도 자신은 삼 년 상을 마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
 는,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궁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탄했다. 주변 누구도
 자신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자신을 슬픔 속에 방치한 것에 대한 형용
 이자 탄식이다. 화자는 자신의 신세가 죽을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겨워, 차마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을 원망하면서도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화자는 제문에서 본인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자기 신세를 안쓰럽게 여긴다. 남편의 삼 년 상을 빌미로 목숨을 부지하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처지라 얼굴을 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해나 위로, 도움을 갈구하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인식에 간혀 고립될 수밖에 없는 ‘독처’의 울분이 제문에 구구절절이 표현되고 있다.

4 제문 작성의 의도와 의미_자기 표백(表白)과 제문의 전용(轉用)

앞서 화자는 제문을 쓰는 이유를 거듭 밝히면서¹⁷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부모에게 큰 불효를 끼친 남편 혼백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외로운 혼백과 소통을 시도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를 살펴서 두서없는 글에 감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일차적으로 죽은 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제문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 간곡한 서술에서 화자의 또 다른 바람도 간취할 수 있다. 가궁한 독처의 처량함을 살펴달라는 표현은 자신의 부족한 글을 넉넉히 읽어달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남편을 여의고 혼자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행간의 의도는 그간의 심정에 대한 제문의 서술에서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화자가 묘사하는 남편은 “귀인니 분명히”고 “명망니 스희의 진동호오서 일국의 씩여”나며, “출천효심과 동귀화목은 금세의(의) 드”문 사람이다. 남편은 밖에서도 명예와 지위가 높고 집 안에서도 도덕적인 인물이라 형용한다. 남편의 속내도 생전 효심이 지극했으니 소기를 맞아 부모, 형제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추정,¹⁸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 불효를 끼친 원통함을 잊을 날이 없을 것이라는 짐작¹⁹으로 서술된다. 죽은 남편이 품을 감정조차도 생전의 도덕적 품성

17 2장의 ㉔ 인용문 참조.

18 “아마 소귀 박두호오니 응당 초성의 효심미 지극호심무로 원부모형테하야 응당 오미불망호읍던 부모 형제 일쳐랄 다시 상봉호시량으로 고향으로 회복호오셔는닷”

19 “우리 소천 청춘요소를 못 면호고 양친시호 불효막덕호오심무로 어니 외로운 혼백이신들여복지원 ” “ 원통지심미 쯔칠날리 잇스리요”

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오히려 화자는 “우리 소천의 혜골은 진실노 혼적주최가 영” 돈절하여”, “추호일분도 아람업소오신 영위랄 의턱홀 쏘더려”라고 언급하며 죽은 남편과의 물리적, 심리적 단절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처럼 남편을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거나 이미 자신과의 관계가 요원해진 대상으로 묘사한다. 이 글에서 남편의 일상, 사소한 행동이나 주고받은 말, 감정적 반응 등 인간적인 면모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 서술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보다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풀어내고 다양한 수사로 표현해냈다. 자신의 억울함, 섭섭함, 고독함에 의한 서글픔을 드러내는 데 많은 비유를 할애하였고 그러한 감정과 고통을 청자/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어휘를 구사하였다. 독처는 자신의 혼자된 처지가 어떠한지 비유적으로 형용하기도 했고, 또 남편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일생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생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양인니 전정니 말니갓탄 평심 일신을 진야 모손호은고로 시” 주
 소야턱의 호련 안즌 곳마다 통분” ” 지원” ” 하여라 독처의 안중의 빼
 굿마다 척” 녹는 심회 통분호음을 이기지 못 좌불안석으로 진실노 여
 광여취호은 마음 정체홀 곳시 바히 업습기로 하여곰 오회통지” ” 라

빼끝마다 척척 녹는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면서 미친 듯 취한 듯한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감정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원통함이 감각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자기 감정의 표현은 남편의 심중을 헤아리는 서술들과 대비된다.

결국 화자가 제문에서 공들여 서술하는 것은 자기 사정이고 감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표현은 이미 관념화되고 단절된 남편뿐 아니라 당시 자신을 오해했고 지금도 자신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는 친지들을 향한 발화, 혹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소로 볼 수 있다. 제문은 죽은 이의 장례, 제사에서 그 혼백을 위로하기 위한 의례용 글이지만, 세상을 떠난 당사자 외에도 의례에 참석하여 제문을 공유하게 되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조와 화법, 내용이 조정되기도 한

다.²⁰ 또 제문은 의례의 상황에서 벗어나, 두루마리 형태로 혹은 여러 편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서 독서물로 읽히기도 했다.²¹ 따라서 제문은 화자와 의례의 주인공인 사자(死者)가 1대 1로 대화를 나누는 소통 방식이기도 하지만, 죽은 이를 매개로 의례에 참석한 주변인이나 제문을 돌려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의사 표현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독처는 남편 소기의 제문을 쓰면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맥락을 고려하고 있다. 제문에서 화자가 힘주어 서술하는 부분은 오해를 샀던 일에 대한 해명과 원망, 자기 처지에 대한 토로와 연민이다. 이러한 서술들은 알음없는 혼백뿐 아니라 ‘무상하고 야속하온’ 동기 친척이나 자신의 처지를 공감해 주지 않는 주변의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독백이다.²²

이처럼 독처의 글은 제문이라는 양식의 글쓰기 가능성을 보여준다. 독처가 남편의 소기를 맞아서 작성한 제문은 남편 혼백을 위로하는 원론적인 목적과 달리, 남편의 죽음이라는 생의 변곡점을 맞이한 여성이 자기 속내를 표현하는 글쓰기로 활용되고 있다. 여성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글을 배우고 쓸 기회가 충분치 않았던 상황에서 제문은 여성의 자기표현이 용인된 장(場)이자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에 의해 추동되는 글쓰기 계기였다. 독처 역시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된 시점에 장편의 제문을 작성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사정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문 작성의 표면적인 이유를 압도하는, 주

20 심대운은 질녀가 시집 간 지 반 년만에 고부 갈등으로 자살하자, 제문을 질녀의 시댁으로 보낸다. 이 제문에서 심대운은 청자/독자의 입장을 의식하면서 질녀의 자살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완곡한 어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심대운이 1년 뒤 이 제문 뒤에 붙인 부기(附記)에는 보다 선명하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질녀를 학대한 정황을 드러내고 질녀를 희생자로 형상화한다. 자살에 책임이 있는 시가의 당사자가 청자/독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서술이다. 김하라, 「고부갈등에 대한 착잡한 시선: 심대운의 「제질녀문(祭姪女文)」 분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81-206쪽 참조.

21 최윤희, 앞의 글, 2013, 328-338쪽 참조.

22 ‘독처의 제문’은 중간에 종이를 덧댄 부분(주12 참조)부터 글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전체 혹은 중간 이후 누군가에 의해 필사된 전사본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제문이 긴 분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읽는 독자’를 상정하고 작성, 필사된 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변인들에게 독처 자신의 영킨 심곡을 풀어내고자 하는 글의 진정한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독처의 경우와 같은 제문 쓰기는 풍양 조씨의 「자기록」처럼 여성이 자기 경험을 기록하는 글쓰기와 맞닿아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해, 옛일을 생각하면서 서술해나간 「자기록」은 저자가 어린 시절 목격한 친정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혼인 후 남편이 죽기까지의 일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남편에 대한 걱정, 시부모에 대한 원망 등을 생생하게 혹은 은연중에 드러내며 자기 삶의 의미를 정립해 나간다.²³ 결국 자기 삶을 증언하는 「자기록」은 제문 쓰기의 전용(轉用)으로 가능했다. 「자기록」 뒤에 다른 제문들을 붙여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전하는 것에서도 편자와 독자가 이 글과 제문의 친연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독처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저자들의 제문 쓰기는 제문의 양식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표현을 만들고 세상에 다른 시각을 열어가는 개별적인 노력들이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제문 안에, 혹은 제문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자기 실존을 알리는 곡진한 이야기로 살아남았다. 독처가 쓴 제문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70-71쪽.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 『자기록』, 나의 시간, 2014, 260-279쪽.

안동민속박물관 편, 『안동의 한글 제문』, 안동민속박물관, 1998, 1-397쪽.

논문

김상홍, 「박남수의 한글 「을미제문」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22호, 한국어문교

23 김경미, 「해제:기록의 힘」, 『자기록』,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 나의 시간, 2014, 260-279쪽.

- 육연구회, 1994, 415-434쪽.
- 김일근, 「정경부인 이씨제문: 충무공 윤숙의 한글 처 제문」, 『인문과학논총』 제 9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125-168쪽.
- 김하라, 「고부갈등에 대한 착잡한 시선: 심대운의 「제질녀문(祭姪女文)」 분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81-206쪽.
- 남민이·한명숙, 「조선시대 수의와 현행 수의의 착의법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제8호, 복식문화학회, 2000, 822-841쪽.
- 류경숙, 「조선조 여성 제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12쪽.
- 조성윤, 「여성 한글 제문(祭文)에 보이는 감정 소통의 원리와 교육」, 『동악어문학』 제72호, 동악어문학회, 2017, 37-59쪽.
- 최윤희, 「「견문록」 소재 한글 제문의 글쓰기 방식과 갈래적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413-438쪽.
- _____, 「한글 제문에 나타난 여성의 애도」, 『고전과해석』 제24호,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 85-110쪽.
- _____, 「한글 제문의 존재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52호, 동양고전학회, 2013, 313-349쪽.
- 홍윤표, 「딸이 쓴 아버지 제문」, 『문헌과 해석』 제17호, 문헌과 해석사, 2001, 54-69쪽.

Abstract

The Narrative Strategy and Meaning of Korean Ceremonial Writings for Husbands
: A Study Focusing on a Ceremonial Writing of *Dokch'ŏ*

Seo Kyunghee

This study examines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long-form ceremonial writings by Korean women. The study focuses on “the ceremonial writing of *dokch'ŏ*.” This ceremonial writing covers events that occurred up to a year after her husband died from an illness. The narrator reveals that she wrote the ceremonial writing to comfort the soul of her lonely husband. However, the narrator is conscious of another listener who, in addition to the

dead person who is the object of consolation, listens to her confession of her troubles and plight.

The narrator explains that it seems that she does not show her sincerity to her sick husband. However, she in fact pours her entire heart and all her effort into her husband's recovery. Moreover, she blames her relatives, who doubted her sincerity, for not giving her a chance to stand by her husband during death. Moreover, she is pessimistic about her situation because she is alive only during her husband's funeral for three years, and she pours out her anger over her lonely life, which no one else recognized.

As such, the ceremonial writing of *dokch'ŏ* describes the sadness caused by one's own resentment, disappointment, and loneliness with considerable weight, and it expresses it using concrete rhetoric. Ceremonial writing was accepted as writing by women and was written in tandem with motivating events. Therefore, in ceremonial writing, self-expression by the author, which overwhelms the superficial purpose of writing, was possible. Women's ceremonial writing that was like *dokch'ŏ* transformed ceremonial writing into writing that described women's personal lives as self-expression.

Key Words: Korean Ceremonial Writing, husband, female writing, consolation, self-expression, *Jakirok*.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